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강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 자연환경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및 가족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3,091명이다. 기술적 통계 및 이원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성과 유형별 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이 유형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 신체학대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정서학대는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이 좋을 때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방임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감소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 감소하였다. 하지만, 비공식적 통제가 증가할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모든 학대유형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통해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 지역사회 자원, 주거환경, 아동학대 및 방임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503-0005)

■ 투고일: 2017.4.27 ■ 수정일: 2017.6.11 ■ 게재확정일: 2017.6.23

I. 서론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 혹은 부모를 둘러싼 다층적인 환경체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Belsky, 1993).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대 및 방임의 발생 원인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 개인의 특성 혹은 가족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오승환, 2003; 조운오, 2011),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이나, 물리적 주거 환경의 영향 등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광혁, 김정석, 2012; 이봉주, 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그러나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체계와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개입이 통합적으로 실시될 때 아동학대 및 방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전략이나(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위험군 가족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미 활용되고 있으나(Farrell, Britner, Guzzardo, & Goodrich, 2010) 국내에는 이러한 개입 전략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기반과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 및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 그리고 가족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아동학대 분야의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구조적 특성은 지역사회 내 빈곤율, 범죄율, 실업률 등을 포함하며(Coulton, Korbin, & Su, 1999; Freisthler, 2004; Friesthler, Midanik, & Gruenewald, 2004; Freisthler, Needell, & Gruenewald, 2005), 과정적 특성은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 즉 지역사회 내 무질서나 집합적 효능감 등을 포함한다(Friesther & Maguire-Jack, 2015; Maguire-Jack & Wang, 2016; Maguire-Jack & Showalter, 2016; Molnar et al., 2016).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정신건강, 가정폭력 치료, 알콜중독 치료,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의 양과 기타 자원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Maguire-Jack & Klein, 2015; Negash & Maguire-Jack, 2016). 국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이혼율, 일인당 재산세, 편모가구 비율, 외국인 비율, 이종인구 비율 등의 지역사회 구조적 특성(김세원, 2016; 이봉주, 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혹은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인식(김광혁, 김정석, 2012; 김세원, 2016)이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이웃이 있는지(정선영, 2016) 등의 과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의 대표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무질서, 집합적 효능감 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 연구들이 지역 내 사회서비스와 학대 및 방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Maguire-Jack & Klein, 2015; Negash & Maguire-Jack, 2016) 가정폭력, 정신건강 서비스 등 치료적 개입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에 관심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 주민을 위한 복지 및 문화시설 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Sampson, 1992) 이들 자원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들 자원에 대한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양육자가 인지하는 접근성이 중요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은 주목받지 못했다.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서도 주거 환경이 아동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Coley, Leventhal, Lynch, & Kull, 2013; Evans, Wells, & Moch, 2003),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및 국외 연구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내의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내 복지 및 문화시설과 교통시설의 접근성 및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학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대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형별 학대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동 및 행위자, 가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까지 개입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무질서 및 집합적 효능감과 아동학대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수의 외국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 사회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학대와 방임의 발생률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structure) 특성과 과정적(process)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구조적 특성은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빈곤율, 실업률 등의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거주민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등을 의미한다. 과정적 특성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지역사회 조직화(social organization) 정도,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결핍 등을 의미한다(Coulton et al., 2007).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과정적 특성에서의 차이가 지역 간 학대와 방임의 발생률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국내 연구에서 지역사회 특성과 학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김광혁, 김정석, 2012; 김세원, 2016; 이봉주, 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구조적 특성인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외국인비율, 범죄율, 일인당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액, 이혼율, 편부 및 편모가구 비율, 고졸비율, 일인당 사용하는 방 수, 전입 및 전출 등의 이동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아동인구 비율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과정적 특성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는지, 거주민들의 음주 및 흡연을 등을 살펴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아동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아동 중 해당 시군구 아동의 비율을 제도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학대 및 방임 신고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반면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최근의 외국의 연구들이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는 지역사회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Cao & Maguire-Jack, 2016; Friesther & Magure-Jack, 2015; Guterman et al., 2009; Maguire-Jack & Showalter, 2016; Molnar et al., 2016)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하지만(김광혁, 김정석, 2012; 김세원, 2016)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으로 개념화하여 변인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없었다.

지역사회 조직화 이론(social organization theory)에 따르면(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지역사회가 빈곤하고, 구성원이 자주 바뀌며, 구성원간의 이질성이 높아 주민들이 조직화(organization)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내 무질서(disorder)가 증가하여 구성원들이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거주민들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이 낮아지며, 지역사회 내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 발견될 경우에 주민이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호 개입하고자 하는 비공

식적 사회적 통제(informal social control)가 약해진다.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는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을 구성하는 것으로, 집합적 효능감이 낮아질 때 범죄행동 및 아동학대 및 방임이 증가한다.

선행 연구들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높을 때, 그리고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 낮을 때 학대의 발생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Guterman 등(2009)은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무질서와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을 측정하여 하나의 잠재변수로 만들어, 양육자가 이들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방임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내면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고 보고한다. Cao와 Maguire-Jack(2016)도 Guterman 등(2009)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여 Guterman 등(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Friesther 와 Maguire-Jack(2015)의 연구는 지역사회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지역사회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집합적 효능감이 낮을수록 신체학대가 증가하였다. Maguire-Jack과 Showalter(2016)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응집력이 낮을 경우 방임은 증가하지만, 신체학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Molnar 등(2016)의 연구는 지역사회 내 높은 집합적 효능감이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의 발생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한다. 종합해 보면 연구별로 지역사회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이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이들 각 변인들이 유형별 학대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때 아동학대 행동이 감소하였는데(김광혁, 김정석, 2012)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신체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세원, 2016). 이들 연구는 지역사회 인식은 사회적 응집력, 비공식적 통제, 지역의 안전도 등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지역사회 인식이라는 변인을 만들고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그동안의 국내 연구 가운데 지역의 과정적 특성으로 지역사회 무질서, 집합적 효능감(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및 사회적 응집력)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일 뿐 아니라 개별 변인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기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 집합적 효능감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및 사회적 응집력)으로 측정된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이 유형별 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과 아동학대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알코올의 접근가능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알코올을 판매하는 장소의 수가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Freisthler, Needell, & Gruenewald, 2005; Friesthler, Midanik, & Gruenewald, 2004). 저자에 따르면 알코올 판매로 인해 지역주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알코올 소비를 위해 몰려드는 인구 증가로 주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Freisthler, Johnson-Motoyama와 Kepple(2014)은 지역 내 알코올을 판매하는 식당의 수가 아동을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집에 혼자 두는 감독 방임의 발생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Maguire-Jack과 Klein(2015)는 지역 내 서비스(정신건강/약물남용 치료 서비스, 보육 서비스, 가정폭력 치료 서비스, 빈곤감소를 위한 서비스) 이용기관까지의 거리와 방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약물남용 치료 서비스 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방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받기가 어려워 양육에서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Negash와 Maguire-Jack(2016)은 가정폭력,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남용, 주거, 보육, 의료 및 양육에 관련된 서비스가 지역 내에 많이 존재할수록 학대 및 방임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부모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학대와 방임이 예방되는 것이다. Klein(2011)은 지역사회 내 아동보육시설이 수위에 비해 많을수록, 그리고 전체 아동 중 유치원(preschool, nursery school)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생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해 보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알코올 판매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아동학대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아동 보육시설이나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서비스기관과 같이 부모 및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회복시켜주는 시설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실증적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알코올 판매소, 아동보육시설,

정신건강 및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 외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및 복지시설과 교통시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은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Sampson, 1992), 궁극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의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공원 등)이나 공원, 녹지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주민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지지의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생활반경이 넓을 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징벌적 양육태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에 기반하여(Friesthler, Thomas, Curry, & Wolf, 2016), 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의 편리한 이용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신건강, 가정폭력 등에 관한 서비스 및 기관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넘어서 지역사회 내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의 자연환경, 사회복지기관 및 대중교통시설 등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사회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잠재적 이용자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낮게 인지할 경우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백학영, 윤민석, 2007). 접근 및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시설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감소할 것이다.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서도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족 내부와 외부의 자원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가족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McCubbin & Patterson, 1983). 양육자가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을 높게 평가할 경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접근성을 낮게 평가할 경우 자원의 활용이나 문제 대처에 소극적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존재 및 물리적 거리를 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인지한 접근성이 아동학대 및 방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기존의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이론적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주거환경의 질과 아동학대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지역사회 내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나, 빈 집의 비율, 과밀거주 비율 등을 살펴보았으나(Drake & Pandey, 1996; Deccio et al., 1994; Zuravin, 1986) 개별가족이 처한 물리적 주거 환경의 질은 아동학대와 방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부동산 가격, 빈 집 비율, 과밀집 주거 등을 동네(neighborhood) 단위로 비교하였고 동네/지역별 아동학대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이봉주와 김세원(2005)이 7대 광역시의 동별 아동학대 발생률이 지역의 주택 내 개인별 이용하는 방의 수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외를 통틀어 개별 가구의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가구 내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주거환경과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가족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Coley, Leventhal, Lynch, & Kull, 2013). 주거환경의 질에 따라 양육자의 정서적 및 행동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깨진 창문, 새는 지붕, 고장 난 난방시설 등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질이 양육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 기능 및 인지기술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Coley, Leventhal, Lynch, & Kull, 2013). 저자는 연구결과가 실증적 자료를 통해 기존의 주거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가족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에게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을 일으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 및 등을 가져오며,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한다. 그리고 이로써 아동이 정서적 혹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이 저해된다(Conger & Donnellan, 2007). 국내에서는 임세희(2010)의 연구에서 최저기준 미달주거가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매개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최저기준 미달주거와 아동학대간의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최저기준 미달주거가 주거자의 인식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면적, 구성원에 따라 분리된 침실, 상수도 시설이 완비된 부엌이 있는지 등이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양육자가 물리적 환경의 질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육자의 정신건강 및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물리적 주거환경이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관되게 기존 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Evans, Wells, & Moch, 2003).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인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안전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를 증가시키며, 통제력의 상실을 느끼게 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이 양육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분야의 연구에서 양육자의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Lee, Taylor, & Bellamy, 2012; Stith et al., 2009). 요약하면, 물리적 주거환경과 거주자의 정신건강, 그리고 아동학대 및 방임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물리적 주거환경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부모의 정신건강 및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물리적 주거환경이 부정적 양육행동의 극단적 형태인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보고한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신체학대, 방임, 정서학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 내 무질서 및 집합적 효능감(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이 유형별 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지역사회 내 문화체육, 복지 및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유형별 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가족의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유형별 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3년도에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한 3,091명의 어머니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자와 아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층화표본추출을 활용하여 총 4,000개의 가구의 보호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9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설문문항에 응답하였으며 9세 이상은 아동이 직접 아동용 설문에 답하였다. 설문은 가족 및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정 및 학교생활, 아동의 발달,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등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변인뿐 아니라 아동과 양육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특성 및 주거환경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용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를 골라 표본을 구성하였고 어머니가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인

신체학대는 “△△(이)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주위의 물건(예. 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아이가 맞았다”, “△△(이)를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칼이나 흉기(예. 송곳, 못, 도끼 등)으로 찔렸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정서학대는 “△△(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 “△△(이)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방임은 “△△(이)만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게 했다”, “△△(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 줄 수 없었다”, “△△(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 “△△(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의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이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 표시하였다. 학대유형별로 문항 모두에 “전혀없었다”를 고른 경우 미발생(0)으로, 1개 이상의 문항에 “전혀없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고른 경우 발생(1)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나. 독립변인

지역사회 특성 중 무질서는 “동네에서 술취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끼리 싸움이 쉽게 일어 난다”의 두 문항을 예(1), 아니오(0)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무질서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집합적 효능감은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응집력으로 각각 측정하였고,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는 “동네 아이들이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이 술 담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의 2문항을 예(1), 아니오(0)로 측정하여 합산하였고, 사회적 응집력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낸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만하다”의 2문항을 예(1), 아니오(0)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집합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역 내 시설 접근성은 4개의 이분화 변수, 지역 내 문화/체육 시설 접근성, 복지관련 시설 접근성, 자연환경 접근성, 교통시설 접근성으로 측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예=1, 아니오=0),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예=1, 아니오=0),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하다”(예=1, 아니오=0)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은 주택이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포함한 4문항에 예(1), 아니오(0)로 양육자가 응답한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였

다. 부정형으로 표현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 통제변인

다양한 아동특성, 모의 특성, 가족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연령(연속변수), 모의 연령(연속변수) 및 학력(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근로여부(근로=1, 비근로=0), 한부모 가구 여부(예=1, 아니오=0),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예=1, 아니오=0), 월평균 총소득(연속변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부터 600~800만원 미만(7), 800~1000만원 미만(8), 1000만원 이상(9) 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모가 받은 사회적지지, 모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를 연속변수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모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등), 정서적 도움(의논, 푸념상대 등), 생활의 도움(가사, 집 봐주기, 간병 등), 정보 제공(육아, 교육 등에 관한 정보)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측정하여(0=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1, 받는 편임=2, 매우 많이 받음=3) 합산하였다. 우울은 지난 1주일간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 등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하도록 정의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때문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다고 느낀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를 경험한다” 등 총 5개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측정하여(0=전혀 그렇지 않음, 1=그렇지 않음, 2=보통,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총점이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였고,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유형별 학대의 발생유무에 따라 집단 간 주요변수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석을 활용하였다. 연속변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맨-휘트니 U 검정을 활용하였고, 범주형변수의 비교를 위해 카이검정을 활용하였다. 맨-휘트니 U 검정은 T-test 와 유사하게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지만 표본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검정이다(이학식, 임지훈, 2015). 지역사회 특성 및 주거환경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학대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로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 물리적 주거환경과 과년된 변인들을 각각 따로 투입해 보고(모델 1, 모델2, 모델3), 마지막으로 전체 독립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독립변인의 예측력을 살펴보았다(모델4). 분석에는 SPSS 23이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및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표 1>에 제시되었다. 연속변수인 경우 최소값, 최대값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범주형변수인 경우 빈도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평균나이는 9세 가량이었으며 모의 나이는 평균 39세 가량이다. 41% 가량의 모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46%가량이 근로를 하고 있었다. 한부모 가구가 25%, 복지수급 가구가 31%가량을 차지하였다. 지역사회 특성가운데 응집력의 평균이 비공식적 통제에 비해 높았고, 지역사회 무질서는 값이 클수록 무질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평균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70%에서 90%가량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의 질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학대 하위유형 가운데 신체학대의 발생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의 순서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표 1. 표본의 특성

(N=3,091)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빈도	분석 표본수
통제변수				
아동나이	0	17	8.54(5.15)	3,091
모 나이	17	76	38.81(6.27)	3,082
모 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41.1%	3,083
모 근로			45.9%	3,047
모 우울	0	33	6.91(5.90)	3,073
모 양육 스트레스	0	20	7.39(4.41)	3,065
사회적 지지	0	12	3.38(2.78)	3,084
한부모 가구			25%	3,091
복지 수급			30.9%	3,091
월평균 총소득	1	9	3.42(1.55)	3,087
독립변수				
지역사회 무질서	0	2	.55(.79)	3,088
비공식적 통제	0	2	.82(.90)	3,086
응집력	0	2	1.50(.79)	3,085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높음			77.6%	3,089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접근성 높음			71.5%	3,087
자연환경 접근성 높음			84.3%	3,087
대중교통 접근성 높음			91.1%	3,089
주거 환경의 질	0	4	3.32(.87)	3,086
종속변수				
신체학대			4.3%	3,063
정서학대			9.6%	3,067
방임			35.5%	3,084

<표 2>에서는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의 상관계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인 유형별 학대와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 시설 접근성, 주거환경의 질은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개별변수와 유형별 학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신체학대는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 가운데 무질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시설

접근성 중에는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자연환경에의 접근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거환경의 질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학대는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 가운데 무질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공식적 통제와 사회적 응집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설 접근성 중에는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자연환경에의 접근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거환경의 질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방입은 지역사회 무질서와 비공식적 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응집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설 접근성 중에는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자연환경, 대중교통 시설에의 접근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거환경의 질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지역사회 무질서	1										
2. 비공식적 통제	.000	1									
3. 응집력	-.167***	.339***	1								
4.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높음	.002	.100**	.142**	1							
5.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접근성 높음	-.010	.091**	.164**	.636**	1						
6. 자연환경 접근성 높음	-.112**	.072**	.131**	.253**	.264*	1					
7. 대중교통 접근성 높음	-.123**	-.042*	.089**	.193**	.184**	.295**	1				
8. 주거 환경의 질	-.173**	.032	.132**	.148**	.129**	.066**	.124**	1			
9. 신체학대	.039*	-.021	-.026	-.076**	-.096**	-.069**	-.025	-.083**	1		
10. 정서학대	.066**	-.079**	-.115**	-.095**	-.135**	-.053**	.015	-.072**	.351**	1	
11. 방입	.167**	.044*	-.063**	-.037*	-.054**	-.037*	-.108**	-.112**	.143**	.204**	1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변수조합에 따라 n=3061~3088의 범위를 가짐

*p<.05, **p<.01, ***p<.001

2. 유형별 학대 발생에 따른 집단 비교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형별 학대의 발생여부에 따라 주요변수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신체학대가 발생한 집단에서 지역사회 무질서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고,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접근성, 자연환경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환경의 질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정서학대가 발생한 집단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비공식적 통제나 사회적 응집력은 낮게 나타났다. 정서학대가 발생한 집단에서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자연환경에의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질도 정서학대가 발생한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방임이 발생한 집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역사회 무질서가 높게 나타났고, 비공식적 통제와 사회적 응집력은 낮게 나타났다.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자연환경,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방임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질도 방임이 발생한 집단에서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3. 유형별 학대 발생에 따른 집단 비교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발생	미발생	유의도	발생	미발생	유의도	발생	미발생	유의도
지역사회 무질서 ¹⁾	.69	.54	**	.71	.53	***	.72	.45	***
비공식적 통제 ¹⁾	.73	.82	-	.58	.84	***	.87	.79	*
응집력 ¹⁾	.14	.15	-	1.22	1.53	***	1.43	1.54	**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높음 ²⁾	62.6	78.3	***	65.5	78.9	***	75.5	78.7	*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접근성 높음 ²⁾	51.1	72.6	***	52.9	73.7	***	68.2	73.3	**
자연환경 접근성 높음 ²⁾	72.5	84.8	***	78.5	85	**	82.5	85.4	*
대중교통 접근성 높음 ²⁾	87.8	91.3	-	92.5	91.1	-	87	93.4	***
주거 환경의 질 ¹⁾	2.98	3.34	**	3.13	3.35	**	3.19	3.39	***

1) 평균값을 활용하여 집단 간 비교함

2) 빈도를 활용하여 집단 간 비교함

*p<.05, **p<.01, ***p<.001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변수조합에 따라 n=3058~3079의 범위를 가짐

3.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

표 4.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신체학대

	Model 1 n=2,947		Model 2 n=2,951		Model 3 n=2,952		Model 4 n=2,942	
	b	OR	b	OR	b	OR	b	OR
통제변수								
아동나이	.05	1.05	.05	1.05	.04	1.04	.05	1.05
모 나이	-.04	.96	-.04	.96	-.04	.97	-.04	.97
모 학력	-.12	.88	-.09	.91	-.12	.89	-.07	.93
모 근로여부	.30	1.35	.23	1.26	.29	1.34	.27	1.31
모 우울	.07***	1.07	.06***	1.07	.06***	1.07	.06**	1.06
모 양육 스트레스	.08**	1.08	.07**	1.08	.07**	1.08	.07**	1.08
사회적 지지	-.05	.95	-.04	.96	-.04	.96	-.05	.96
한부모 가구	.49	1.62	.48	1.61	.51	1.67	.52	1.69
복지 수급	-1.20***	.30	-1.12**	.33	-1.27***	.28	-1.25***	.29
월평균 총소득	-.13	.88	-.11	.90	-.11	.90	-.10	.91
독립변수								
지역사회 무질서	.07	1.08					.06	1.05
집합적 효율성								
비공식적 통제	-.13	.88					-.09	.91
응집력	.15	1.16					.19	1.21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								
문화체육시설			-.12	.88			-.11	.90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50*	.60			-.45	.64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			-.42	.66			-.43	.65
대중교통			.17	1.18			.18	1.20
주거 환경의 질					-.28**	.76	-.27**	.77
df=14	df=13		df=14		df=11		df=18	
	-2LL=973.40		-2LL=964.63		-2LL=966.63		-2LL=946.83	
	$\chi^2=73.72$ ***		$\chi^2=89.04$ ***		$\chi^2=80.93$ ***		$\chi^2=93.64$ ***	

*p<.05, **p<.01, ***p<.001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특성이 학대 하위유형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가 <표 4>, <표 5> 및 <표 6> 제시되었다. 학대유형별로 유의한 지역사회 특성 변인 및 주거환경 변인에 차이가 있었다. 신체학대는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 및 물리

적 주거환경의 질에 영향을 받았고 정서학대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 사회적 응집력,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에 영향을 받았다. 방임은 지역사회 무질서와 비공식적 통제, 대중교통 접근성에 영향을 받았다.

<표 4>의 신체학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모델 1에서는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지역사회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을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자연환경, 대중교통)을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하였다. 모델 3에서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을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하였고 모델 4에서는 모든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다. 모델 2에서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이 가까이 있을 때 신체학대 발생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OR=.60, $p<.05$) 모든 독립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델 4에서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반면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은 모델 3과 모델 4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했을 때에도,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신체학대 가능성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77, $p<.01$). 그 외에도 모의 우울(OR=1.06, $p<.01$)과 양육스트레스(OR=1.08, $<.01$), 복지수급(OR=.29, $p<.001$)이 신체학대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복지수급을 받는 경우 오히려 신체학대 가능성이 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모두 양육자 및 가구의 취약성이 신체학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정서학대 모델의 경우 신체학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변수들이 각각 따로 3가지 모델에 투입되었고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투입되었다.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 응집력,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모델 4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에는 응집력을 제외한 변인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의하게 남아있었다. 모델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내 비공식적 통제가 1단위 증가할 때 정서학대 가능성은 20% 감소하였다(OR=.80, $p<.01$).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접근성이 좋을 때 정서학대 가능성은 53% 감소하였다(OR=.47, $p<.01$). 대중교통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정서학대의 가능성이 2.20배 증가하였다(OR=2.20, $p<.01$). 대중교통은 상관관계 분석 및 집단 간 비교에서 정서학대 발생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변인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함께 모델에 투입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정서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아동나이가 1살 증가할 때 학대 가능성이 11%증가하였고(OR=1.11, p<.001), 모의 우울(OR=1.03, p<.01)과 스트레스(OR=1.10, p<.001)가 증가할수록 정서학대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표 5.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정서학대

	Model 1 n=2,951		Model 2 n=2,955		Model 3 n=2,956		Model 4 n=2,946	
	b	OR	b	OR	b	OR	b	OR
통제변수								
아동나이	.10***	1.11	.11***	1.12	.11***	1.11	.11***	1.11
모 나이	-.02	.98	-.02	.98	-.03	.98	-.02	.98
모 학력	-.04	.96	-.04	.97	-.04	.96	-.03	.97
모 근로여부	.27	1.31	.22	1.24	.26	1.30	.23	1.26
모 우울	.04***	1.04	.04***	1.05	.05***	1.05	.03**	1.03
모 양육 스트레스	.09***	1.09	.09***	1.09	.08***	1.09	.09***	1.10
사회적 지지	-.01	.99	-.02	.98	-.02	.98	-.01	.99
한부모 가구	-.15	.86	-.13	.88	-.13	.88	-.14	.87
복지 수급	-.03	.97	.09	1.11	-.04	1.00	.04	1.04
월평균 총소득	-.04	.96	-.01	.99	-.03	.97	-.01	.99
독립변수								
지역사회 무질서	.08	1.08					.11	1.11
집합적 효율성								
비공식적 통제	-.25**	.78					-.22**	.80
응집력	-.18*	.84					-.15	.86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								
문화체육시설			-.03	.97			-.04	.96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80***	.45			-.76***	.47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			-.24	.79			-.18	.84
대중교통			.81**	2.25			.79**	2.20
주거 환경의 질					-.07	.93	-.02	.98
df=17	df=13		df=14		df=11		df=18	
	-2LL=1693.71		-2LL=1675.42		-2LL=1719.63		-2LL=1653.05	
	χ2=166.71***		χ2=190.29***		χ2=146.28***		χ2=206.36***	

*p<.05, **p<.01, ***p<.001

표 6.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방임

	Model 1 n=2,967		Model 2 n=2,971		Model 3 n=2,972		Model 4 n=2,962	
	b	OR	b	OR	b	OR	b	OR
통제변수								
아동나이	.13***	1.14	.14***	1.15	.14***	1.15	.14***	1.15
모 나이	.01	1.01	.01	1.01	.01	1.01	.02	1.02
모 학력	-.08	.92	-.09	.91	-.10	.91	-.08	.93
모 근로여부	.56***	1.75	.52***	1.68	.50***	1.66	.56***	1.76
모 우울	.08***	1.08	.07***	1.08	.07***	1.08	.07***	1.08
모 양육 스트레스	.09***	1.09	.10***	1.10	.10***	1.10	.09***	1.09
사회적 지지	-.00	1.00	.00	1.00	.00	1.00	-.00	1.00
한부모 가구	.15	1.16	.19	1.20	.16	1.17	.19	1.20
복지 수급	-.26	.77	-.35*	.71	-.35	.70	-.29	.75
월평균 총소득	-.05	.95	-.07	.93	-.07	.93	-.05	.96
독립변수								
지역사회 무질서	.31***	1.36					.29***	1.34
집합적 효율성								
비공식적 통제	.17**	1.18					.15**	1.16
응집력	.05	1.05					.08	1.08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								
문화체육시설			.20	1.22			.16	1.17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09	.92			-.13	.88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			.05	1.05			.07	1.07
대중교통			-.69***	.50			-.59***	.56
주거 환경의 질					-.09	.92	-.05	.95
		df=13		df=14		df=11		df=18
		-2LL=3135.68		-2LL=3158.46		-2LL=3178.40		-2LL=3109.65
		$\chi^2=727.54$ ***		$\chi^2=710.66$ ***		$\chi^2=690.41$ ***		$\chi^2=745.61$ ***

*p<.05, **p<.01, ***p<.001

<표 6>의 방임 모델의 경우 마찬가지로 독립변수들이 각각 따로 3가지 모델에 투입되었고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투입되었다. 방임의 경우 지역사회 내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모델 4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투입된 이후에도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방임의 발생

을 예측하였다. 모델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방임의 가능성이 34% 증가하였다($OR=1.34, p<.001$). 또한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가 증가할수록 방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OR=1.16, p<.01$) 이는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결과였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 방임 가능성이 44% 감소($OR=.56, p<.001$)하였다. 그 외에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방임 가능성이 증가했고($OR=1.15, p<.001$), 모가 근로하는 경우도 그러하였다($OR=1.76, p<.001$). 모의 우울($OR=1.08, p<.001$)과 스트레스($OR=1.09, p<.001$)도 방임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특성인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사회적 응집력과 지역 내 문화, 복지 및 교통시설과 자연환경에의 접근성, 그리고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학대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양육자가 인지한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접근성이 좋은 경우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다만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접근성은 물리적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사회적 응집력)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성이 사라졌다. 정서학대는 지역사회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사회적 응집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접근성이 좋은 경우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나,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 때 정서학대가 증가하여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응집력은 물리적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유의성이 사라졌다. 방임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증가할 때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비공식적 통제는 예상과 다르게 방임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 방임의 발생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것은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는데, 생활환경의 확대 및 이동의 편리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양육자의 언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교통이 가까울 때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나 기타 의식주와 관련된 물자의 공급이 편리하고 주변의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좀 더 역동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양육자가 양육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방임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사회 내 거주민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상호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학대 및 방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Sampson, 1992)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자가 이웃의 비공식적 통제가 높다고 인지하여 주변 이웃들이 자녀를 돌보아 줄 것으로 생각하여 방임이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과 문화, 체육, 복지 및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로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국내 연구 가운데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결과에서 학대의 하위 유형별로 유의한 예측변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이 흥미로운데, 신체학대는 3가지 학대 하위유형 중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중요하게 나타난 유일한 유형이며, 반면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유일한 유형이기도 하다. 기존의 외국 연구들이 신체학대가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는 것(Cao & Maguire-Jack, 2016; Friesther & Maguire-Jack, 2015; Guterman et al., 2009)과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의 내용 및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본 연구와 차이가 있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국내의 신체학대의 발생과정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지역사회 과정적 특성과 신체학대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만큼 과정적 특성에 대한 변수측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는 신체학대의 발생에 있어서, 양육자에게 좀 더 직접적인 물리적 주거 환경의 영향이 지역사회의 영향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분석과정에서 주거환경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이 신체학대 감소를 예측하였으나 주거환경 변수를 투입한 후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지역사회 과정 변수는 주거환경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에서 그 영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지한 양육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과정에서 신체학대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혹은 충동조절능력 부족, 갈등 및 문제해결능력 부족 등 신체학대로 이어지기 쉬운 특성을 가진 양육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Coulton et al., 2007).

반면 지역사회의 과정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학대 유형은 방임과 정서학대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무질서가 증가할 때, 방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ao & Maguire-Jack, 2016; Friesther & Maguire-Jack, 2015; Guterman et al., 2009). 지역사회 내 무질서가 증가하고 공동의 윤리적 규범이 공유되지 않을 때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비윤리적, 비규범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Coulton et al., 2007). 하지만, 지역사회 통제가 증가할수록 방임이 함께 증가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Cao & Maguire-Jack, 2016; Friesther & Maguire-Jack, 2015; Guterman et al., 2009)으로 이 역시 외국 연구와 본 연구의 측정도구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의 차이인지 연구 표본 및 자료의 특성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민들이 지역 내 규범에서 어긋난 행동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할수록 거주민들의 행동이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오히려 아동을 적절히 돌보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대신 돌보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방임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정서학대는 비공식적 통제와 응집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하였다(Cao & Maguire-Jack, 2016; Friesther & Maguire-Jack, 2015; Guterman et al., 2009). 주변의 시선이나 조언, 지역주민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모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언어표현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집력은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의 질을 모델에서 함께 고려했을 때 유의성이 사라졌다.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문화, 체육, 복지 및 교통 시설의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는 양육자가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인식할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이용하면서 부정적 양육행동 감소에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이들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통해 부모가 부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의 이용뿐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정서학대를 오히려 증가시켰고, 방임은 감소시키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정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 자연환경의 접근성은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주

로 물리적 거리를 근거로 시설 접근성을 측정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측정도구의 차이가 연구의 결과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통제변수 가운데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세 가지 학대유형 모두의 발생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복지수급가구인 경우 오히려 신체학대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복지수급이 빈곤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급을 통해 물질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으며, 방임의 경우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필요한 양육행동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모가 일을 하는 경우 방임의 가능성이 증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과 양육의 양립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양육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해 무질서를 감소시켜야 하겠으며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기관의 접근가능성을 높이 인지하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 인력 등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대와 방임으로 신고 된 경우에도 개별상담 위주의 서비스가 대부분 제공되는 실정으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나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설치 및 홍보 등이 요구된다. 물리적으로 복지관련 기관을 증설하거나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위치나 이용에 대해 홍보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거주민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풀뿌리 기관들이 지역주민조직화 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내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아동 돌봄에

대한 공동의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양육자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거 및 지역사회 특성이 아동발달이나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공통적인 방법론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한 주거 및 지역사회 특성이 아동 및 가족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은 소득, 직업 등 가족 고유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주택 및 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택하므로 이러한 가족의 본연적 특성과 주택 및 지역사회 환경 특성을 분리하여 아동발달 및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Coulto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측정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의 특성은 연구에서 통제되지 않은 가족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특성이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음으로, 종단자료가 아닌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예측변인과 종속변인의 발생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지역사회 특성 및 자원의 접근성 그리고 물리적 주거환경이 양육자의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된 여지가 있고, 실제 지역사회 특성 및 자원, 그리고 주거환경의 특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 뿐 아니라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와 방임 역시 양육자에 의해 자기 보고됨으로써 예측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련성이 측정과정에서 부풀려졌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물리적 혹은 객관적 지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주거환경의 질도 제 삼자에 의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무질서, 비공식적 통제 및 응집력이 연속변수이지만 변수 값의 범위(range)가 넓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러 변수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과정보다 특성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실제로 비공식적 통제와 응집력을 합산하여 집합적 효능감 변인 하나로 조작화하여 분석모델에 투입하였을 때에도 결과에 변화는 없었다.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4개의 문항(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대중교통, 자연환경)을 합산하여 사용하여도 결과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학대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시설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4개의 이분화 변수 활용하였다.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아동학대 및 방임 연구에서 다소 소홀했던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환경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

론적 이해를 넓히고 또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개입 범위를 개인 및 가족에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강지영은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며, 현재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측변인, 예방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ykang@sookmyung.ac.kr)

참고문헌

- 김광혁, 김정석. (2012). 가족빈곤 및 지역사회환경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발달. *사회과학논총*, 28(1), pp.45-64.
- 김세원. (2016).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분석 및 가족중심 예방전략.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3.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백학영, 윤민석. (2007).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219.
- 안선경, 양지혜, 정의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pp.331-358.
- 오승환. (2003). 빈곤지역 거주 아동의 학대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아동권리연구*, 7(3), pp.1-18.
- 이봉주, 김세원.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pp.347-373.
- 이학식, 임지훈. (2015). SPSS 22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377-402
- 정선영. (2016).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과 지역사회 특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2(4). pp.1-19.
- 조윤오. (2011). 부모의 음주행동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pp.51-76.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pp.413-434.
- Cao, Y., & Maguire-Jack, K. (2016). Interactions with community members and institutions: Preventive pathways for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62, pp.111-121.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Past, present, and future*. http://www.childwelfare.gov/pubs/issue_briefs/cm_prevention.cfm에서 2017.3.20. 인출.
- Coley, R. L., Leventhal, T., Lynch, A. D., & Kull, M. (2013). Relations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pp.1775-1789.
- Conger, R. D., & Donnellan, M. B. (200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pp.175-199.
- Coulton, C. J., Crampton, D. S., Irwin, M., Spilsbury, J. C., & Korbin, J. E. (2007). How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maltreat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lternative pathways. *Child Abuse & Neglect*, 31(11-12), pp.1117-1142.
- Coulton, C. J., Korbin, J. E., & Su, M. (1999). Neighborhoods and child maltreatment: A multi-leve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3(11), pp.1019-1040.
- Coulton, C. J., Ritcher, F., Kim, S., Fischer, R., & Cho, Y. (2016). Temporal effects of distressed housing on early childhood risk factors and kindergarten readin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8, pp.59-72.
- Deccio, G., Horner, W. C., & Wilson, D. (1994). High-risk neighborhoods and high-risk families: Replication research related to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8(3-4), pp.123-137.
- Drake, B., & Pandey, S. (1996).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specific typ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0(11), pp.1003-1018.
- Evans, G. W., Wells, N. M., & Moch, A. (2003). Housing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Social Issues*, 59(4), pp.475-500.
- Farrell, A. F., Britner, P. A., Guzzardo, M., & Goodrish, S. (2010). Supportive housing for families in child welfare: Client characteristics and their outcomes

- at discharg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2), 145-154.
- Freisthler, B. (2004). A spatial analysis of social disorganization, alcohol access, and rates of child maltreatment in neighborhoo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9), pp.804-819.
- Freisthler, B., Johnson-Motoyama, M., & Kepple, N. J. (2014). Inadequate child supervision: The role of alcohol outlet density, parent drinking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43, pp.75-84.
- Friesther, B., & Magure-Jack, K. (2015).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neighborhood structural factors, social processes, and alcohol outlets on child physical abuse. *Child Maltreatment*, 20(4), pp.268-277.
- Friesthler, B., Midanik, L. T., & Gruenewald, P. J. (2004). Alcohol outlets and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pplying routine activity theory to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5), pp.586-592.
- Freisthler, B., Needell, B., & Gruenewald, P. J. (2005). Is the physical availability of alcohol and illicit drugs related to neighborhood rat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9(9), pp.1049-1060.
- Friesthler, B., Thomas, C. A., Curry, S. R., & Wolf, J. P. (2016). An alternative 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 exploratory study of how activity spaces and perception of neighborhood social processes relate to maladaptive parenting. *Child Youth Care Forum*, 45(2), pp.259-277.
- Guterman, N., Lee, S., Taylor, C. A., & Rathouz, P. J. (2009). Parental perceptions of neighborhood processes, stress, personal control, and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33(12), pp.897-906.
- Klein, S. (2011). The availability of neighborhood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resources and the maltreatment of young children. *Child Maltreatment*, 16(4), pp.300-311.
- Lee, S. J., Taylor, C. A., & Bellamy, J. L. (2012). Paternal depression and risk for child neglect in father-involved families in young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6(5), pp.461-469.

- Maguire-Jack, K., & Klein, S. (2015). Parenting and proximity to social services: Lessons from Los Angeles County in the community context of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45, pp.35-45.
- Maguire-Jack, K., & Showalter, K. (2016). The protective effect of neighborhood social cohesion in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52, pp.29-37.
- Maguire-Jack, K., & Wang, X. (2016). Pathways from neighborhood to neglect: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6, pp.28-3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 pp.7-37.
- Molnar, B. E., Goerge, R. M., Gilsanz, P., Hill, A., Subramanian, S. V., Holton, J. K., Duncan, D. T., et al. (2016). Neighborhood-level social processes and substantial cas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51, pp.41-53.
- Negash, T., & Maguire-Jack, K. (2016). Do social services matter for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Intera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s knowledge of available local social servic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5), pp.557-565.
- Sampson, R. J. (1992). Family management and child development: Insights from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n McCord, J. (Ed.),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Facts, frameworks, and forecasts* Vol. 3. (pp.63-93). NewBrunswick: Transaction.
- Stith, S. M., Liu, T., Davies, L. C., Boykin, E. L., Alder, M. C., Harris, J. M., et al. (2009). Risk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1), pp.13-29.
- Zuravin, S. J. (1986). Residential density and urban child maltreatment: An aggregate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 pp.307-322.

Child Maltreatment and Perceive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Housing Quality by Caregivers

Kang, Jiyo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housing quality perceived by caregivers. Community characteristics included social disorder, informal control and social cohesion, in addition to proximity to facilities (e.g. parks, gyms, etc.), institutions (social work agenc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Also, various caregiver and family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control variables. The sample included 3,091 mothers who participated in 2013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Life. Descriptive analysis, bivariat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1) physical abuse was associated with housing quality; 2) that emotional abuse was less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and proximity to social work agencies, but more likely with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3) that neglect was less likely with low social disorder and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but more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ll thre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It was discussed how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using community organization and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Keywords: Community Process, Community Resources, Housing Quality, Child Maltreatment